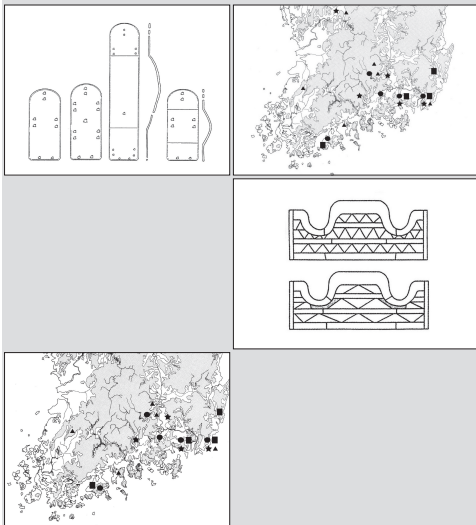




#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倭係 甲冑)의 분포와 의미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Japanese Style Armors from  
the Korean Peninsular

김 혁 중  
부산박물관

## I . 머리말

## II . 연구 현황 검토

1. 제작지 문제
2. 왜계 갑주의 수용 배경 문제
3. 정리

## III .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구조와 특징

1. 왜계 갑주의 구분
2. 왜계 갑주의 구조와 특징

## IV .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포와 의미

1. 분포 양상
2. 왜계 갑주의 소유 배경 검토
3.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포 의미

## V .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의 2011년도 상반기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음.

## 국문 요약

삼국시대에는 많은 철제 갑주가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주목할 점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동일한 계통의 갑주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일본열도와 관련된 많은 왜계 문화요소가 확인되는데 갑주도 제작 기술이나 정황 등으로 보아 왜계 유물로 판단된다.

그런데 왜계 갑주는 당시 왜정권의 상징적인 유물로 평가되므로 한반도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있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제작지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한반도에서 출토된 왜계 갑주의 출현 배경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가야지역은 왜계 갑주가 집중되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였지만 백제와 신라에서 출토된 왜계 갑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고는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부장 양상 및 분포 양상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대금계 갑주 및 왜계 찰갑의 형식 분류와 전개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를 제외한 삼국 모두 왜계 갑주가 확인되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수용 배경과 의미가 다를 수 있었다. 기왕의 연구는 이러한 왜계 갑주의 한반도 분포가 왜왕권의 철소재 입수와 같은 교역에 따른 군사적 진출로 평가되거나 가야에 집중된 자료만으로는 왜와 가야의 관계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삼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왜계 갑주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와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이해된 신라는 왜계 갑주를 통해 볼 때 당시 신라의 영토 확장 정책과 관련하여 왜와 군사적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백제 역시 일찍부터 왜계 갑주가 확인되는데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분 출토 왜계 갑주는 위세품이라기보다 백제의 남방을 감시하는 왜계 백제관료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물로 이해된다.

**주제어** : 왜계 갑주, 분포양상, 한반도, 왜

## I . 머리말

한반도의 4~6세기에 해당하는 고분에서는 많은 갑주(甲冑)가 출토되었다. 갑주는 의복의 일종이지만 공격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방호구(防護具)이다. 그러므로 갑주가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피장자의 신분과 관련된 것이거나 의례 행위와 관련된 부산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삼국 간 전쟁이 잦았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갑옷은 다양한 개량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아군과 적군 사이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형태가 달리 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중 몸통을 보호하는 갑(甲)은 크게 판갑(板甲)과 찰갑(札甲)으로 구분되는데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판갑은 시기별로 4세기대는 종장판갑(縱長板甲)이, 5~6세기대는 대금계 판갑(帶金係 板甲)이 한반도에서 확인된다. 그 중 대금계 판갑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열도에서도 다수가 출토되고 있어 흥미로운 대상이다. 따라서 대금계 판갑이 한반도산인지 일본열도산인지에 대해 한일 양국의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수용배경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금계 판갑은 단순히 제품 생산의 원류 문제를 떠나서 일본 고고학에서는 왜정권(近畿의 중앙 정권)의 일원적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분여의 대상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대금계 판갑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당시의 한일 관계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찰갑은 지금까지 판갑에 비해 갑옷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토 수량이 판갑보다 많으며 제작이나 사용이 더 오래되어 온 주요 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복원 및 정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던 데 있다. 그러나 최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출토되는 찰갑의 전체적인 양상이 정리되고 있으며 그 중 왜계로 볼 수 있는 것도 존재함이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왜계 찰갑 역시 대금계 판갑과 더불어 당시 한일 관계사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교섭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에서 갑주가 갖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고는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를 동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기왕의 연구현황을 분석한 후, 왜계 갑주의 구조와 특징, 또 그 속에 포함된 의미에 접근할 것이다.

## Ⅱ. 연구 현황 검토

한반도에서 출토된 왜계 갑주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제작지에 관한 것, 그리고 수용 배경과 의미에 관한 것이 중심이었으며 수량이 적은 투구나 부속구를 제외하고 주로 대금계 판갑과 찰갑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 기왕의 연구 쟁점을 분석하고 본고의 연구방향을 잡고자 한다.

### 1. 제작지 문제

먼저 대금계 판갑의 제작지 검토는 한일 양국 출토품의 구조를 비교 검토하면서 제작과 관련된 여러 정황적 측면도 분석하여 제작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기술적 문제와 정황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제작지에 대해서는 ‘南部朝鮮出土の鐵製鋌留甲冑’라는 논고(穴沢啄光·馬目順一 1975)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다. 이 글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 출토 갑주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와 같은 왜의 군사적 진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小林行雄(1982)은 판갑의 제작기술과 관련시켜 지판의 연결기법이 혁철에서 병유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원류가 일본열도가 아닌 한반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대금계 갑주와는 다른 판갑인 종장판갑이 확인되면서 종장판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독자적 갑주 제작 기술이 밝혀지게 되었고 대금계 갑주의 제작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 연구자가 송계현과 橋本達也로 양자는 각각 한반도산과 일본열도산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다.

먼저 기술적 문제로 송계현(2001)은 일본열도 출토품과 비교하여 영남지방에서 출토되는 대금계 판갑의 특징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옥전 68호 삼각판 혁철판갑(三角板革綴板甲)의 후동 진동판의 병유기법, 지산동 32호 횡장판 병유판갑(橫長板鉾留板甲)의 절판복륜(折板覆輪), 생곡동 가달 4호 · 전 연산동 출토 삼각판병유판갑(三角板鉾留板甲)에 사용된 장조호접번(長鈞壺蝶番)이다. 그는 나열한 이 특징들이 일본열도 출토품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 대금계 판갑들을 낙동강하류역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橋本達也(200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열도 출토품에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橋本達也는 대금계 판갑이 한반도에서 제작되었다면 형식적인 변천에서 확실성이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종장판갑과 동일한 계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열도에서 확인되는 목갑(木甲) 등에서 대금계 판갑의 조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두 연구자는 유물 분석에 따른 결론이 아닌 당시 한일 양국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제작지 근거로 들고 있다. 우선 송계현(2001)은 일본 고분시대(古墳時代)의 갑주가 출현하고 소멸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출현기 일본열도에 등장하는 마구가 가야와 유사함을 근거로 일본의 대금계 갑주 생산을 가야 남부지역의 영향으로 보았으며 이후 일본열도에서 대금계 갑주인 판갑, 충각부주, 미비부주 등의 중기형 갑주가 한반도와 동시에 소멸하는 현상은 한반도의 공급 제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일본열도에서 본격적인 철생산 시기가 6세기임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에서 출토되는 많은 양의 갑주가 과연 일본 내에서 생산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橋本達也(2005)은 대금계 갑주가 한반도산이라 가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 가지 의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열도에 들어온 갑주가 모두 대금계 갑주뿐인 점, 둘째, 한반도 내에서 대금계 갑주가 소수인 점, 셋째, 종장판갑과 대금계 판갑과 같은 다른 계보의 갑주가 왜 한반도에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대금계 갑주를 한반도제로 이해하기 곤란하며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의 이입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종장판갑과 대금계 판갑이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이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일본열도에 들어간 한반도산 갑

주가 종장판갑이 아니라 찰갑뿐인 것은 종장판갑이 당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물품이어서 의도적으로 일본열도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금계 판갑을 일본열도 고유의 갑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종장판갑은 대금계 판갑보다 제작 및 사용 시기가 빠르다. 따라서 위의 문제제기를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제작지 문제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견해가 있다. 우선 福尾正彦(2003)은 기술적으로 한반도 출토 종장판갑과 비교하면서 일본열도 최초의 철제 판갑인 수신판혁철단갑(堅矧板革綴短甲)과 제작 기술이 서로 다름을 주장하였으며 송계현이 지적한 다양한 대금계 판갑의 속성은 일본열도에서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금계 판갑의 형식적인 변천이 일본열도에 있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현주(2009) 역시 기술적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연결기법과 복륜기법에 주목하였다. 한반도 고유의 철제 판갑인 종장판갑의 연결방법이 혁철(革綴)에서 병유(鉾留)로, 가죽을 이용한 혁뉴복륜이 철판을 접거나 덧대는 절판·철판 복륜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그 이후 시기인 대금계 판갑에 혁철기법과 혁뉴복륜이 적용된 것은 두 판갑 모두를 한반도제로 볼 경우 기술 퇴보라고 볼 수 밖에 없게 되므로 대금계 갑주의 제작지를 일본열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찰갑은 판갑과 달리 한반도와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용된 갑옷으로 계통이나 변화양상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찰갑은 개폐방식에 따라 동환식(胴丸式)과 양당식(兩檔式)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동환식은 허리 부분의 형태가 ‘S’형과 ‘Ω’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뉜다. 이 중 ‘Ω’형을 이루는 동환식 찰갑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모두에서 제작되어 그 계통을 두고 異見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먼저 주목한 清水和明(1996)은 동아시아 각 지역 찰갑의 특성을 검토하고 ‘Ω’형 요찰과 제일 하단에 붙는 ‘Ω’형 거찰을 검토한 찰갑을 일본열도제로 분류했다. 이후 ‘Ω’형 소찰을 이용한 찰갑을 검토하여 ‘Ω’형과 같은 소찰의 단면형태뿐만 아니라 평면형태도 고려하여 한반도에서 ‘Ω’형 요찰이 등장하고 나서 일본열도에서 자체의 ‘Ω’형 요찰을 가진 찰갑이 성립되는 과정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內山敏行 2008, 森川祐輔 2008). 한국에서는 이러한 찰갑이 제작의 다양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지적한 견해(우순희 2001 : 120)가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Ω’형 요철을 가진 찰갑들을 보고하면서 그 계통에 대해 논한 연구 결과도 있다(김혁중 2009).

## 2. 왜계 갑주의 수용 배경 문제

왜계 갑주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피장자가 그 물품을 일본열도로부터 수용하였다고 가정한다.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한 견해들은 정치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왜계 갑주의 수용 배경에 대한 최초의 견해는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穴沢啄光·馬目順一(1975)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대금계 갑주를 검토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임나일본부와 같은 왜의 군사적 진출과 관련지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 자체는 긍정하지 않으나 왜의 군사적 진출의 산물로 이해하는 견해(田中晋作 2010)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 다른 정치적 견해는 수용 배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금계 갑주의 출현을 왜와의 군사적 동맹 관계의 산물로 보는 시각(박천수 2007)에 서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경으로는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다양한 물적 교류가 있었던 만큼 왜계 갑주도 그 대상물의 하나로 공급과 입수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논리(송정식 2010, 김낙중 2010, 内山敏行 2008, 森川祐輔 2008)와 대금계 갑주의 경우 당시 주력 무기에 비해 비실용적임을 강조하고 매장의례의 일부로서 입수 배경을 이해하려는 견해(이현주 2009)가 있다.

## 3. 정리

이상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왜계 갑주 연구현황의 대강을 살펴보았는데 주요 논점과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을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우선 갑주의 제작지 문제에 대한 쟁점은 대금계 갑주의 경우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이형식의 제작 기술이 일본열도에서도 확인되는지 여부이고 찰갑은 동환식 찰갑 중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만 확인되는 ‘Ω’자형 요철을 가진 찰



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외에 당시 철생산 능력 등의 주변 배경도 제작지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갑주와 가장 관련이 깊은 당시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관련 비교가 부족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왜계 갑주의 수용 배경에 대해서는 왜의 군사적 활동에 따른 것과 교류에 의한 입수와 유통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 중 왜의 군사적 활동의 경우, 수용자 입장에서 어떤 배경과 관련하여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이해없이 단지 왜측이 철 입수와 일본열도 내 교역권 장악과 관련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는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왜계 갑주가 한반도에 고르게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왜와 가야의 관계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것은 왜계 갑주의 출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부족이다. 그리고 왜계 갑주를 부장하는 양상은 이후 살펴보겠지만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왜계 갑주를 부장한 묘의 피장자 출신 역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 Ⅲ.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구조와 특징

#### 1. 왜계 갑주의 구분

한반도에서 출토된 외래계 문물은 갑주말고도 다양하다. 외래계 문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외래계 유물에 대한 적절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에 외래계 문물의 판단을 위해 사용된 항목들을 약간의 변용을 거쳐 왜계 갑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 ① 출현 단계에서 재지 갑주 계보와는 다른 제작 기법이나 형태를 갖추고 있다.

1) 武末純一(1988)의 이질적 문화권의 토기 판정 기준을 인용한 井上主税(2006 : 14)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인용하였다.



- ② 출현 단계에서 불안정적, 비보편적인 존재이다.
- ③ 역으로 기원지에서는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존재이며, 제작 기법이나 형태도 그 계보를 찾을 수 있다.
- ④ 다른 유구·유물을 보아도 모순이 없다.

여기서 언급되는 조건에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서 왜계 갑주를 구분하고자 한다.

### 1) 대금계 갑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금계 갑주의 제작지를 일본열도로 보고자 한다. 우선 기술적 문제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계현이 지적한 기술적 요소의 다양함은 일본열도 제작품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대금계 판갑이 제작되기 전 시기인 4세기대 종장판갑에 보이는 꺾수문이라든지 조장(鳥裝)을 상기시킬 수 있었던 장식적 요소가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출토 대금계 판갑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열도의 대금계 판갑은 종장판갑에는 보이지 않는 어깨부위를 크게 과장한다던가 마름모꼴 형태로 지판을 만드는 등 장식적 요소가 5세기 중엽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다(阪口英毅 2000).

다음으로 정황적 문제를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생산의 중심지 문제이다. 만일 대금계 판갑의 제작지가 한반도라면 당시 정치체 중 제작의 중심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에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백제와 신라의 중심고분에서 대금계 판갑이 부장되지 않는다. 또한 가야의 경우 고총에 부장되더라도 찰갑과 같이 부장된다. 박천수(2007)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금계 판갑의 분포는 시기를 달리해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세기 전반에 대금계 판갑이 분포하는 현상을 두고 이때는 금관가야의 쇠퇴기여서 송계현이 언급한 것과 같이 가야지역에서 대금계 갑주가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당시 일본열도와 활발한 교섭을 벌인 동래·창녕 세력에 의해 이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시기별로 분포의 중심지가 변화하는 점을 지적하고 가야 남부 세력을 제작지로 볼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무구가 어떠한 의미에서 이입되었는

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는 교류가 아닌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당시 동래·창녕 세력이 과연 신라의 목인 하에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갑주와 같은 위세품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둘째로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무기체계 비교 검토이다. 갑주는 전쟁 장구로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무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갑옷은 당시 무기체계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금계 판갑이 한일 양국의 무기체계에서 적합한 갑옷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무기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김두철 2005, 우병철 200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일찍이 북방의 여러 국가와의 잦은 전쟁을 통해 체계화된 무장이 이루어졌으며 그 예의 하나가 중장기병대이다. 신라와 가야는 이에 비해 선진화가 늦게 이루어졌으나 400년 고구려 남정을 전후로 해서 무장체계가 완비되어 갔다. 이는 마구의 개량과 찰갑의 보급 그리고 철모의 개량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열도는 당시 가야와 비교해 갑주와 마구의 도입이 늦었으며 철모 대신 대부분 장도(長刀)를 사용하여 왜의 무장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단병기 일색으로 이로 보아 당시 무장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격용 무기의 변화에 민감한 갑주가 한반도와 일본열도 모두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금계 갑주가 한반도의 체계적 무장체계에 적합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미 체계적인 전술이 성립했던 고구려와 동북지방의 갑주를 보면 판갑은 거의 없고 찰갑 일색이다. 또한 한반도는 대금계 갑주가 존재하는 시기에 찰갑이 월등히 많으므로 주요 방어용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대금계 갑주가 한반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일본열도에서 제작되어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2) 찰갑

찰갑은 대금계 판갑과 달리 사용기간이 길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찰갑의 여러 형식 중 동환식 찰갑 안의 ‘Ω’자형 요찰과 ‘Ω’자형 거찰 그리고 요찰의 투공 배치가 2열을 이루는 찰갑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에서만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계통에 논란이 있다.

[표 1]은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Ω’자형 찰갑과 공반 갑주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Ω’자형 요찰과 ‘Ω’자형 거찰 그리고 요찰의 투공 배치가 2열인

[표 1] 영남지방 출토 ‘Ω’자형 찰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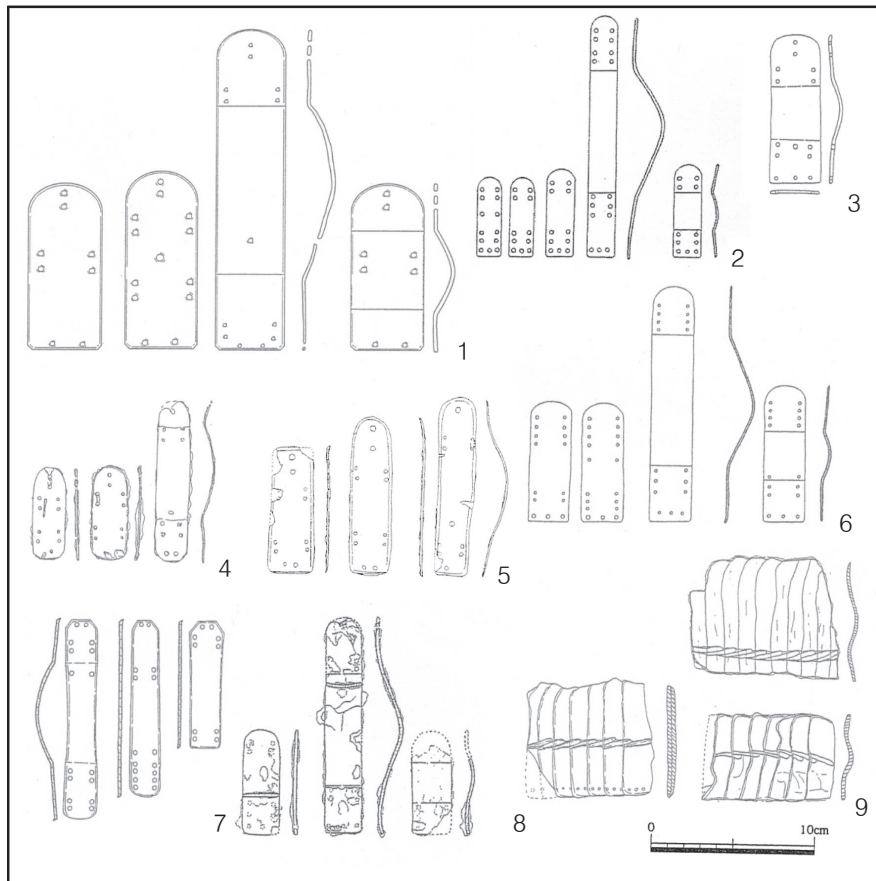
| 출토 고분      | 거찰<br>형태 | 요찰<br>투공<br>배치 | 묘제     | 공반 갑주                                               | 기타    |
|------------|----------|----------------|--------|-----------------------------------------------------|-------|
| 교동 3호      | 평찰       | 2열             | 횡구식석실묘 | 삼각판횡장판병용병유판갑                                        |       |
| 연산동 8호     |          | 2열             | 수혈식석곽묘 | 삼각판병유판갑<br>장방판혁찰판갑<br>타연식 경갑<br>굉갑(A형식)<br>총장판갑, 마주 |       |
| 송학동 I A-1호 | ‘Ω’자형    | 2열             | 수혈식석실묘 | 타연식 경갑                                              |       |
| 도항리 8호     | 평찰       | 1열             | 수혈식석곽묘 | 총장판주, 마갑                                            |       |
| 옥전 M3호     | 평찰       | 1열             | 수혈식석곽묘 | 소찰주, 경갑,<br>마주, 금동장주                                |       |
| 옥전 5호      | 평찰       | 1열             | 목곽묘    |                                                     |       |
| 지산동 45호    | ?        | ?              | 수혈식석곽묘 |                                                     |       |
| 장목 고분      | ‘Ω’자형    | 2열             | 횡혈식석실  | 대금계 갑주편                                             | 큐슈계석실 |
| 신덕 고분      | ‘Ω’자형    | 1열             | 횡혈식석실  | 타연식 경갑                                              | 큐슈계석실 |
| 쌍암동 고분     | ‘Ω’자형    | 1열             | 횡혈식석실  |                                                     |       |

동환식 찰갑은 [표 1]에서 보듯 대금계 갑주 등 왜계 갑주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 유형의 찰갑은 일본열도에서 출토예가 많으며 시기적으로 선행한다<sup>2)</sup>. 다음으로 이외의 ‘Ω’자형의 요찰을 가진 찰갑 혹은 2열 투공 배치를 이루는 동환식 찰갑을 살펴보자. 후술하겠지만 투공 배치는 1열에서 2열로 변화하고 단면도 ‘S’자형에서 ‘Ω’자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1열 배치와 ‘S’자형 요찰을 가진 찰갑이 이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2열 배치로 제작된 찰갑은 ‘S’자형과 ‘Ω’자형 요찰 모두가 확인되므로 찰갑 제작의 전환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열 배치의 찰갑에 주목하고 한반도와 일본열도산 찰갑을 비교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2) 일본 고분시대 편년으로 중기 6단계에 2열 배치의 동환식 찰갑이 출현한 것에 반해 한반도에서 이 형식이 출토된 장목고분은 중기 7단계로 보고 있다(內山敏行 2008 : 710).

그에 따르면 한반도산은 일본열도와 다른 점도 있지만 소찰 아랫단의 3공을 뚫고 ‘Ω’자형 거찰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출현하는 점은 동일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열도산은 2열 배치를 가진 동환식 찰갑으로 한반도에서 대금계 갑주(삼각판병유단갑 · 횡신판병유단갑 · 왜계 경갑(견갑 · 打延式 頸甲))와 공반하여 출토된 점을 지적하였다.

삼국시대 찰갑 중 동환식 찰갑인 ‘Ω’자형 찰갑과 ‘S’자형 찰갑은 요찰 단면형태나 소찰의 연결방법 등에서 분명 제작기법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계통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Ω’자형 찰갑이 한반도에서의 출현 단계에 불안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S’자형 찰갑에 ‘Ω’자형 찰갑의



[그림 1] ‘Ω’자형 찰갑 1. 쌍암동 고분, 2. 송학동 1A-1호, 3. 옥전 M3호, 4. 옥전 5호, 5. 도항리 8호, 6. 장목 고분, 7. 교동 3호, 8. 신덕고분, 9. 지산동 45호

투공 배치라 할 수 있는 2열 배치도 존재하며 ‘Ω’자형 찰갑도 1열 배치의 요소가 보이므로 양 제작기법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일본열도산으로 보는 ‘Ω’자형 찰갑 안에서 거찰이 ‘Ω’자형 소찰인 것은 안정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이 부분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신덕고분, 장목 고분, 송학동 IA-1호의 경우 유구나 다른 유물로 보아도 일본열도산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 찰갑은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왜계 찰갑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2. 왜계 갑주의 구조와 특징

이번 항에서는 왜계 갑주로 본 대금계 판갑과 찰갑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갑주와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을 분명히 하며 또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금계 판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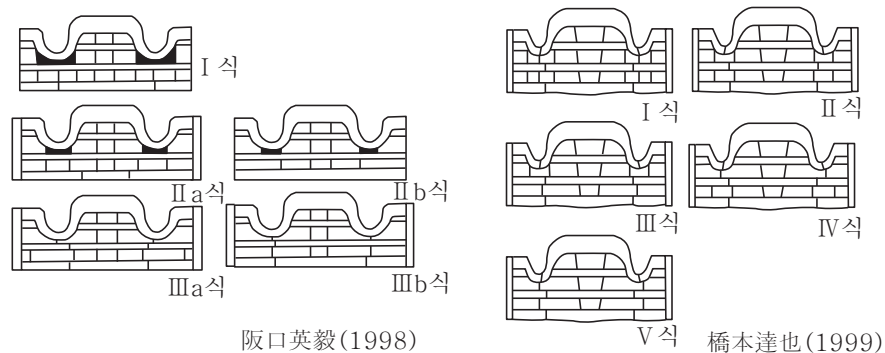
#### (1) 대금계 판갑의 형식 분류

한반도 출토 대금계 판갑의 형식분류 및 시공간적 위치에 대한 검토는 많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대금계 판갑만을 주제로 검토한 연구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한반도 출토 대금계 판갑의 시공적 위치를 검토한 대표적 연구자는 白井克也(2003), 橋本達也(2006), 鈴木一有(1996·2007)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白井克也(2003)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대금계 판갑에 대한 전반적인 편년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금계 판갑에 대한 구조 검토없이 공반되는 마구와 토기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연대를 제시한 점에 한계가 있다. 橋本達也(2006)은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대금계 갑주 편년표를 기본으로 한반도 출토 대금계 판갑의 편년표를 제시했다. 대금계 갑주의 성립 시기는 절대연대를 나타내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백제와의 통교, 고구려와의 교전 및 패전에 관한 문헌을 바탕으로 ‘370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대

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갑주의 성립은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따른 한반도 갑주 제작 기술의 유입을 근거로 본 것이다. 4세기 후반에 중장판갑의 틀이 갖추어진 것을 감안하면 일견 타당한 견해로 생각되나 ‘대금(帶金)’이라는 요소는 어디서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鈴木一有(1996)은 삼각판계판갑(삼각판혁철판갑·삼각판병유판갑)에 대한 형식학적 검토를 통해 편년을 하고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그가 주목한 것은 지판인 삼각판의 배열로 A형(고형鼓形)과 B형(능형菱形)으로 구분하고 한반도에 B형이 많은 것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B형이 일본열도의 경우 기나이畿内に 집중하고 한반도는 가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 간의 깊은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그는 대금계 갑주 중 삼각판계판갑의 편년을 정립하는데 형식학적 검토에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왜계 철촉과의 병행 관계를 언급하였다(鈴木一有 2007). 갑주가 무기와 상관관계가 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있는 연대를 도출할 수 있는 검토라 생각된다. 그러나 삼각판계판갑에만 한정된 연구라는데 한계점이 있다.

위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출토된 대금계 판갑을 보면 크게 삼각판갑, 장방판갑, 횡장판갑으로 나뉘고 소재인 철판에 연결되는 방법이 가죽 끈이나 못이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금계 판갑의 큰 시간적 흐름은 장방판혁철판갑이 먼저 생산되고 이후 삼각판혁철판갑이 등장하여 병행되어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장방판혁철판갑과 삼각판혁철판갑의 병행시기에 대해서는 異論이 존재한다. 어쨌든 이후 병유기법의 도입으로 장방판갑은 사라지고 삼각판갑이 병유기법을 도입하여 삼각판병유판갑이 제작되며 또 횡장판갑으로 변화한다. 삼각판갑에서 횡장판갑으로의 변화배경에는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삼각형을 모티브로 하는 문양에 대한 의식의 희박화(阪口英毅 1998)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금계 판갑 안에서도 異形式의 판갑들이 존재하여 변화과정이 다양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면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방판갑, 삼각판갑 순으로 한반도 출토품의 편년적 위치를 살펴보겠다.



[그림 2] 장방판철판갑 형식도

장방판갑은 삼각판갑 및 횡장판갑과 달리 가죽 끈으로만 연결되었다. 만일 연결기법이 가죽 끈에서 못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가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장방판갑을 앞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방판철판갑의 형식학적 검토는 阪口英毅(1998)와 橋本達也(1999)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 연구들에서 형식변화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는 지판 매수의 변화와 복부 1단(지판 제2단)의 옆구리 부위(협부)에 해당하는 지판의 변화이다.

우선 阪口英毅(1998)은 장방판철판갑을 지판 매수에 의해 3식으로 구분하고 각 형식은 앞서 언급한 복부 1단(지판 제2단)의 옆구리 부위 변화에 의해 두 가지로 세분화였다. 이를 살펴보면 I 식은 협부 좌우에 각각 2매의 소형 지판을 사용한 것이며 장측 3단의 철판 매수를 가지고 다시 a, b식으로 분류 하였다. a식은 장측 3단을 7매로 구성한 것이고 b식은 장측 3단의 전동에 1매를 이용하고 장측 3단을 6매 이하의 지판으로 구성한 것이다.

II 식은 협부 좌우에 각각 상단이 오목한 1매의 지판을 사용한 것으로 I 식 처럼 다시 a, b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a식은 전동 장측 3단의 인합판에 접해 소형의 장방형 지판을 이용하였고 b식은 장측 3단에 5매의 지판을 구성하였다.

III 식은 협부에 한정된 지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형식들은 장방판철 성립기인 I 식에서 II a식, III b식으로 변화해 나간다.

다음으로 橋本達也(1999)는 장방판철판갑에 사용되던 기존 용어를 지판과 대금의 특성에 주목하여 수정하였다. 크게 지판과 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지판의 ‘전후동 수상판 제2단’, ‘장측 제1단’, ‘장측 제3단’은 각각



상단 · 중단 · 하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금은 ‘수상 제3단 대금’과 ‘장측 제2단 대금’을 각각 ‘상단 대금’, ‘하단 대금’으로 구분하였다. 그 또한 지판 매수의 변화를 중시하여 I ~ V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 식 : 지판 중하단 9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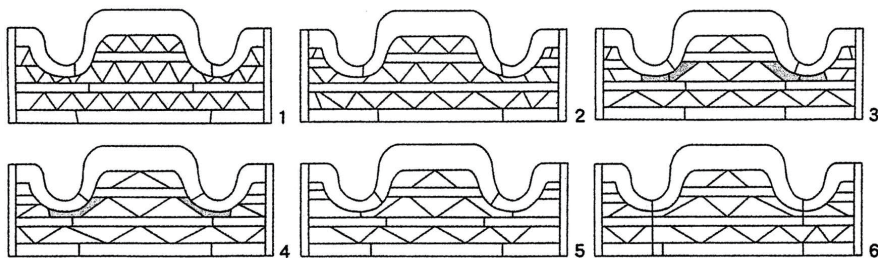
II 식 : 지판 중 · 하단 7매

III 식 : 지판 중단 7매, 하단 5매

IV 식 : 지판 중단 5매, 하단 7매 혹은 5매, 협부와 전동 사이에 소형 철판을 배치

V 식 : 지판 중 · 하단 5매

한반도에서 장방판혁철판갑은 부산 연산동 8호, 김해 삼계동 두곡 72호, 울산 하삼정 115호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김해 삼계동 두곡 72호와 울산 하삼정 115호는 보고서 미간으로 자세한 구조를 알 수 없다. 다만 橋本達也(2007)는 도항리 13호 출토 삼각판혁철판갑과 동일한 시기로 보고 있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두곡 72호와 하삼정 115호는 협부 좌우에 한정되지 않은 지판과 전동 장측 3단이 5매의 지판을 구성하는 점에서 IIIb식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산동 8호 출토 장방판혁철판갑도 앞의 구조 검토에 의하면 阪口英毅 IIIb식과 橋本達也 V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반도 출토 장방판혁철판갑은 같은 형식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삼각판혁철판갑 형식도 1: 등각 I 식, 2: 등각 II 식, 3: 둔각 I 식  
4: 둔각 II 식, 5: 둔각 III 식, 6: 둔각 IV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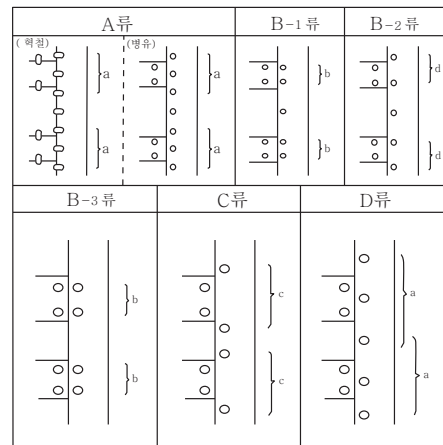
삼각판갑은 연결기법의 재질에 따라 크게 삼각판혁철판갑과 삼각판병유판갑으로 나뉜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삼각판계판갑은 모두 9령으로 이 중 삼각판혁철판갑은 복천동 4호, 옥전 68호, 도항리 13호, 두곡 43호가 있다. 삼각판병유판갑은 가달 4호, 신봉동 90-B1호, 교동 3호가 있으며(표3·5 참고) 연산동 8호분에도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삼각판병유판갑의 좌전동부 일부와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편이 남아 있다.

삼각판혁철판갑의 형식은 지판의 형태와 협부의 형태 및 매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우선 삼각판혁철판갑의 뼈대인 대금 사이에 엮여지는 지판의 형태는 정삼각형(등각계)과 이등변삼각형(둔각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두 유형으로 나누고 협부의 형태 및 매수의 감소에 주목하였다. 우선 정삼각형인 등각계는 지판 2단이 협부를 포함해 모두 삼각형을 이루는 것(등각 I 식)과 부정형판으로 이루어진 것(등각 II 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삼각판혁철판갑의 형식분류

| 종류          | 출토 고분   | 지판 형태 | 협부 형태   | 지판 매수 | 형식    |
|-------------|---------|-------|---------|-------|-------|
| 삼각판<br>혁철판갑 | 복천동 4호  | 등각    | 삼각형     | 13    | 등각 I  |
|             | 옥전 68호  | 둔각    | 두 매를 이룸 | 9     | 둔각 I  |
|             | 도항리 13호 | 둔각    | 두 매를 이룸 | 11    | 둔각 I  |
|             | 두곡 43호  | 둔각    | 'L'자형   | 7     | 둔각 II |

등각계의 지판 매수는 I 식에서 II 식으로 변화하면서 감소한다. 둔각계 역시 협부와 지판 매수에 주목하여 지판 2단의 협부가 두 매를 이루는 것(둔각 I 식), 1매가 'L'자형을 이루는 것(둔각 II 식), 좌우 각각 1매의 지판만으로 구성된 것(둔각 III 식), 협부에 개폐장치를 설치한 것(둔각 IV 식)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삼각판혁철판갑은 등각계에서 둔각



[그림 4] 병유판갑 속성도 (淹沢 誠 1991 인용)

계로 파생되었으며 양산을 거둬들여 지판의 형태보다 생산성을 우선하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삼각판혈철판갑을 위 연구 결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삼각판혈철판갑의 형식별 상대 순서는 복천동 4호 → 옥전 68호 · 도항리 13호 → 두곡 43호로 볼 수 있다. 이 중 옥전 68호와 도항리 13호는 지판 매수 감소 경향을 고려하면 도항리 13호가 조금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삼각판병유판갑은 鈴木一有(2005)에 따르면 삼각판혈철판갑과 동 일련의 제품으로 지판의 삼각형 형태로 구분하여 지판 2단의 지판 매수가 7분할 → 5분할 → 3분할로 변화하고 지판 2단의 형태가 삼각형분할에서 장방형분할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병유로 연결된 삼각판갑과 횡장판갑 모두를 검토한 滝沢誠(1991)은 못의 크기와 간격에 주목하여 삼각판병유판갑을 모두 4개의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못의 크기가 소형인 것은 I 식, 대형인 것은 II 식으로 나누고 I 식과 II 식 안에서 인합판과 지판의 못 위치, 못 수의 감소에 따라 구분하였다([그림 4] 참고).

횡장판갑 역시 형식 분류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앞서 삼각판병유판갑처럼 병두의 수와 크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반도에서는 부산 복천동 112호, 고령 지산동 32호, 함천 옥전 28호, 음성 망이산성, 전 장성 만무리 출토품이 있다. 앞에서 구분한 요소를 적용하면 [표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3] 병유판갑의 형식분류

| 종류        | 출토 고분      | 못 위치 | 인합판과 못 위치      | 병두크기   | 개폐장치    | 기타  | 형식  |
|-----------|------------|------|----------------|--------|---------|-----|-----|
| 삼각판 병유 판갑 | 가달 4호      | ?    | b <sub>1</sub> | 7~8mm  | 구호원형 3병 | 둔각계 | Ⅱ a |
|           | 신봉동 90-B1호 | ?    | b <sub>1</sub> | 6.5mm  | ?       | 둔각계 | Ⅱ a |
|           | 연산동 8호     | c    | c              | 7~8mm  | 장방형 2병  | 둔각계 | Ⅱ b |
|           | 교동 3호      | c    | c              | 10mm   | 장방형 2병  | 둔각계 | Ⅱ b |
| 횡장판 병유 판갑 | 지산동 32호    | a    | d              | 8~10mm | ?(고리경첩) |     | Ⅱ b |
|           | 옥전 28호     | c    | c              | 7~8mm  | 장방형 2병  |     | Ⅱ c |
|           | 죽림리        | c    | c              | 7~8mm  | 장방형 2병  |     | Ⅱ c |
|           | 망이산성       | c    | c              | 7~8mm  | 구호-형 3병 |     | Ⅱ c |
|           | 만무리        | ?    | ?              | 7mm    | ?       |     | ?   |

따라서 병유관갑의 상대 순서는 가달 4호 · 신봉동 90-B1호 → 연산동 8호 · 교동 3호 → 지산동 32호 → 옥전28호 · 죽림리 · 망이산성 출토품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장방관혁철관갑, 삼각계관갑(삼각관혁철관갑 · 삼각관병유관갑), 횡장관병유관갑의 형식을 분류하고 그 안의 상대적 출현 순서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대금계 관갑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방형관혁철관갑 → 삼각관혁철관갑 → 삼각관병유관갑 → 횡장관병유관갑 순으로 변화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상 중 삼각관혁철관갑과 장방관혁철관갑은 상당기간 동안 같은 시기에 이용되었다는 견해(阪口英毅 1998)가 있고 그에 대한 반론(勝田和尊 2006)도 있다. 그러나 장방관혁철관갑이 먼저 생산되었다는 점에서는 의견 차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병유관갑은 삼각관갑과 횡장관갑에서 모두 II b식이 출토되었다.

[표 4] 한반도 출토 대금계 관갑의 형식 변화

| 단계 | 형식                                        |                  |                                |                                |
|----|-------------------------------------------|------------------|--------------------------------|--------------------------------|
|    | 장방관                                       | 삼각관혁철            | 삼각관병유                          | 횡장관병유                          |
| 1  |                                           | 등각 I (북천동 4호)    |                                |                                |
| 2  | III b<br>(두곡 72호,<br>하삼정 115호,<br>연산동 8호) | 둔각 I a (도항리 13호) |                                |                                |
| 3  |                                           | 둔각 I b (옥전 68호)  |                                |                                |
| 4  |                                           | 둔각 II (두곡 43호)   |                                |                                |
| 5  |                                           |                  | II a<br>(가달 4호,<br>신봉동 90-B1호) |                                |
| 6  |                                           |                  | II b<br>(교동 3호,<br>연산동 8호)     | II b<br>(지산동 32호)              |
| 7  |                                           |                  |                                | II c<br>(옥전 28호,<br>죽림리, 망이산성) |

| 단계 | 형식                                                                                |                                                                                   |                                                                                   |                                                                                    |
|----|-----------------------------------------------------------------------------------|-----------------------------------------------------------------------------------|-----------------------------------------------------------------------------------|------------------------------------------------------------------------------------|
|    | 장방판                                                                               | 삼각판혁철                                                                             | 삼각판병유                                                                             | 횡장판병유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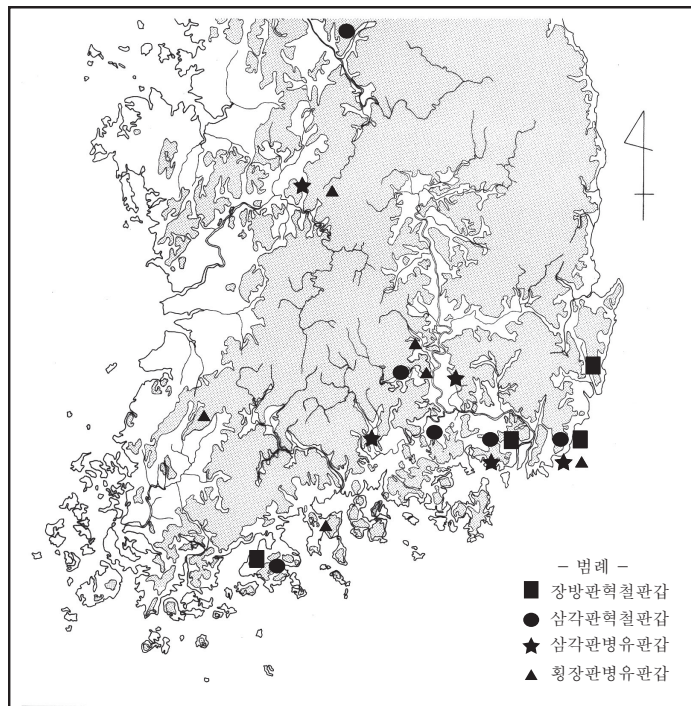
[그림 5] 한반도 출토 대금계 판갑 변천도

앞서 검토한 형식의 상대 순서는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1단계에 확인되는 복천동 4호 출토 삼각판혁철판갑과 연산동 8호분 출토 장방판혁철판갑은 공반된 유물과 시기차가 많이 나므로 전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각 단계에 대한 절대연대는 판갑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한반도 출토 고분의 공반 유물로 살펴볼 수 있다. 현재의 자료를 보면 전세된 1단계의 복천동 4호 출토품을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대금계 판갑이 등장한 시기는 5세기 초로 편년되며 소멸 시기는 5세기 후엽이나 6세기 초로 이해할 수 있다.

## (2) 대금계 판갑의 전개 양상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철제 판갑에는 종장판갑과 대금계 판갑이 있다. 이 두 갑옷의 계통에 대해서는 제작 기술의 변화과정에서 완성된 틀(frame)을 근거로 동일한 계통으로 보는 견해(송정식 2009 : 18)가 있다. 그러나 지관 배치나 장식성 등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어 개체의 계통을 구분하고 기술계통을 언급하는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한반도 출토 대금계 판갑 분포도

그런데 이 갑옷들 간에는 제작 및 성행 시기 그리고 분포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것은 제작 시기로 보아 4세기와 5세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공반된 유물 등을 비교할 때 갑옷 중 판갑은 4세기대에 종장판갑이 영남지방에서 성행하였고 5세기대는 대금계 판갑이 한반도 남부에서 넓은 분포로 확인된다. 대금계 판갑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기 초에 출현하는데 5세기 전반에는 대부분 신라와 가야의 故地인 영남지방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른 시기의 형식으로 판단되는 장방관혁철판갑과 삼각관혁철판갑이 백제지역에서도 확인되며 앞으로 자료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금계 판갑의 수용 시기가 삼국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금계 판갑의 소멸 과정 역시 마지막 형식인 횡장관병유판갑이 넓게 확인되므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금계 판갑이 확인되는 곳이 내륙보다 대부분 해안가와 같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 한반도 출토 대금계 판갑

| 연번 | 출토 고분              | 형식                 | 특징                 | 묘제    | 공반유물                           |                      |
|----|--------------------|--------------------|--------------------|-------|--------------------------------|----------------------|
|    |                    |                    |                    |       | 기타 갑주                          | 그 외                  |
| 1  | 부산 연산동 8호          | 장방판혁철              |                    | 수혈식석곽 | 찰갑, 종장판주<br>총각부주, 견갑,<br>마주    |                      |
| 2  | 김해 삼계동<br>두곡 72호   | 장방판혁철              |                    | 수혈식석곽 |                                |                      |
| 3  | 울산 하삼정 115호        | 장방판혁철              |                    | 수혈식석곽 |                                |                      |
| 4  | 부산 복천동 4호          | 삼각판혁철<br>(鈴木一有 B형) | 겨드랑이<br>부분<br>소형철판 | 수혈식석곽 |                                |                      |
| 5  | 김해 삼계동<br>두곡 43호   | 삼각판혁철<br>(鈴木一有 A형) |                    | 수혈식석곽 | 횡장판 차양주                        |                      |
| 6  | 함안 도항리 13호         | 삼각판혁철<br>(鈴木一有 B형) |                    | 목곽묘   |                                |                      |
| 7  | 합천 옥전 68호          | 삼각판혁철<br>(鈴木一有 B형) | 병류기법               | 목곽묘   |                                |                      |
| 8  | 해남 외도 1호           | 삼각판혁철              |                    | 수혈식석곽 |                                |                      |
| 9  | 김해 율하<br>B구역 1호 석곽 | 삼각판혁철              |                    | 수혈식석곽 |                                | 조설식 철촉               |
| 10 | 파주 주월리             | 삼각판혁철              |                    | 지표수습  |                                |                      |
| 11 | 부산 연산동 8호          | 삼각판병유              | 장조호접변              | 수혈식석곽 |                                |                      |
| 12 | 김해 생곡동<br>가달 4호    | 삼각판병유<br>(鈴木一有 B형) | 장조호접변              | 수혈식석곽 | 견갑, 상박갑                        |                      |
| 13 | 청주 신봉동<br>90-B1호   | 삼각판병유<br>(鈴木一有 A형) |                    | 목곽묘   | 견갑, 상박갑                        | 이단역자형 철촉<br>이중역자형 철촉 |
| 14 | 함양 상백리<br>석곽묘      | 삼각판병유<br>(鈴木一有 B형) |                    |       |                                |                      |
| 15 | 창녕 교동 3호           | 삼각판병유              | 횡장판<br>병용          | 횡구식석실 | 찰갑                             |                      |
| 16 | 전 연산동 고분           | 삼각판병유              | 장조호접변              |       |                                |                      |
| 17 | 부산 복천동 112호        | 횡장판병유              |                    | 수혈식석곽 | 종장판주,<br>상박갑                   |                      |
| 18 | 고령 지산동 32호         | 횡장판병유              | 절판복문<br>장조호접변      | 수혈식석곽 | 종장판주, 찰갑<br>횡장판총각부주<br>견갑, 상박갑 |                      |
| 19 | 합천 옥전 28호          | 횡장판병유              |                    | 목곽묘   | 경갑, 광갑,<br>찰갑, 종장판주,<br>마갑, 마주 | 독립편 역자형<br>철촉        |
| 20 | 음성 망이산성            | 횡장판병유              |                    |       |                                |                      |
| 21 | 고흥 안동 고분           | 장방판혁철              |                    | 수혈식석곽 |                                |                      |
| 22 | 전 장성 만무리           | 횡장판병유              |                    |       |                                | 삼환령                  |
| 23 | 여수 죽림리             | 횡장판병유              |                    | 수혈식석곽 |                                |                      |



그런데 대금계 판갑은 5세기대 한반도의 주요 갑옷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4세기대 일부 사용되던 철제 찰갑이 5세기대 들어서면서 형태나 부속구 겸비 등의 개량을 하면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분포에 있어도 종장판갑은 영남지방에 한정되었으나 대금계 판갑은 한반도 이남에서 넓게 확인된다([그림 6]). 그리고 대금계 판갑은 왜계 찰갑이 확인되는 6세기 이후가 되면 출토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일본열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대금계 판갑은 총 23명으로([표 5] 참고). 4세기대의 주요 갑옷인 종장판갑이 총 37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개체수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대금계 갑주로 분류되는 유물로 투구와 기타 부속구가 있다. 이것들은 판갑과 공반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별로 출토되기도 한다.

[표 6] 왜계 갑주와 한반도 갑주의 공반 관계

| 왜계 갑주만 부장된 사례      |                  |
|--------------------|------------------|
| 출토 고분              | 왜계 갑주            |
| 거제 장목 고분           | 대금식 판갑, 찰갑, 견갑   |
| 고령 지산동 I-3호        | 미비부주             |
| 김해 두곡 43호          | 삼각판혁철판갑, 차양주     |
| 김해 두곡 72호          | 장방판혁철판갑          |
| 김해 율하 유적 B구역 1호    | 삼각판혁철판갑          |
| 김해 죽곡리 94호         | 총각부주, 견갑         |
| 김해 가달 4호           | 삼각판병유판갑, 견갑, 상박갑 |
| 부산 복천동 4호          | 삼각판혁철판갑          |
| 부산 복천동 동2호         | 견갑               |
| 도항리 13호            | 장방판혁철판갑          |
| 옥전 68호             | 삼각판혁철판갑          |
| 울산 하삼정 115호        | 장방판혁철판갑          |
|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II-10호 | 횡장판병유판갑          |
| 청주 신봉동 90-B1호      | 삼각판병유판갑          |
| 해남 외도 1호           | 삼각판혁철판갑          |
| 고흥 안동고분            | 횡장판병유판갑          |
| 신덕 고분              | 찰갑               |

| 대금계 갑주와 왜계 갑주 그리고 한반도산 갑주가 공반되어 부장된 사례                             |                                    |                 |
|--------------------------------------------------------------------|------------------------------------|-----------------|
| 출토 고분                                                              | 왜계 갑주                              | 한반도산 및 기타 계통 갑주 |
| 고령 지산동 32호                                                         | 횡장판병유판갑, 총각부주                      | 종장판주, 찰갑        |
| 고성 송학동 I A-1호                                                      | 찰갑                                 | 소찰주             |
| 부산 복천동 64호                                                         | 방형판갑                               | 종장판주, 찰갑, 비갑    |
| 부산 연산동 8호                                                          | 삼각판병유판갑,<br>장방판혁철판갑, 총각부주편,<br>견갑편 | 찰갑, 종장판주        |
| 창녕 교동 3호                                                           | 삼각판횡장판병유판갑                         | 찰갑              |
| 옥전 28호                                                             | 횡장판병유판갑                            | 찰갑, 종장판주        |
| 복천동 112호                                                           | 횡장판병유판갑, 상박갑                       | 종장판주            |
| * 오륜대 고분, 상백리, 음성 망이산성에서 확인된 왜계 갑주는 출토양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 |                                    |                 |

또한 [표 6]과 같이 한반도산이 분명한 갑주가 공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왜계 갑주로 평가할 수 있는 찰갑도 공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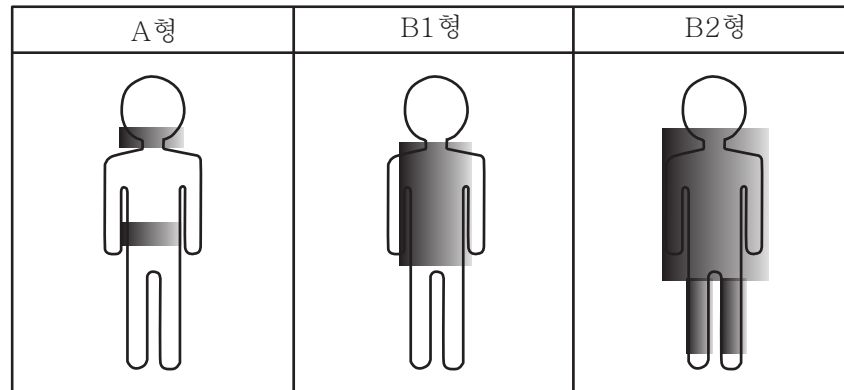
그런데 [표 5]와 [표 6]을 보면 대금계 갑주와 왜계 찰갑이 부장된 사례 간에는 대체로 묘제에 차이가 있다. 왜계 찰갑의 경우는 대부분 큐슈(九州)계 석실이라고 하는 왜계 석실에서 출토되는 반면, 대금계 갑주를 부장한 곳은 수혈식석곽으로 한반도에서 흔히 보이는 묘제이다. 또한 대형묘와 소형묘의 차이도 있다. 대형묘인 고총의 경우, 한반도산 찰갑이 공반되는 경우가 많고 소형묘는 대금계 갑주만 부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후 살펴 볼 피장자의 성격이나 소유 배경과도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찰갑

### (1) 찰갑의 형식분류

삼국시대에 출토된 찰갑은 크게 부속갑의 부위별 존재 여부, 착장 방법과 그 구성을 이루는 소찰의 형태와 연결방식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부속갑의 부위별 존재 여부는 [그림 7]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신체의 전신 혹은 일부의 보호 여부로 구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전신 혹은 상반신을 보호하지 않고 목과 허리 부위만으로 이루어진 찰갑을 A형, 전신 혹은 상

반신이 철제 소찰로 된 찰갑을 B형으로 볼 수 있다. B형은 다시 요찰의 만곡 상태와 부속구의 겸비 여부로 B1(양당식)과 B2(동환식)로 나뉘며 B2는 다시 요찰의 단면 형태('S', 'Ω')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7] 찰갑의 유형(황수진 2010 개변)

다음으로 착장 방식의 구분은 개폐부의 앞트임과 옆트임이 중요한 구분 요소이다. 착장 방식을 통해 구조를 구분하는 경우 출토 상태가 온전하여 구조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 소찰의 형태는 특정 부위의 만곡 여부를 가지고 구분된다. 소찰 형태는 크게 평면 형태와 단면 형태를 통해 구분한다. 평면 형태는 소찰의 상단과 하단의 형태에 따라 상원하방형(원두)과 상방하방형(방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크기와 투공 배치가 더해져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평면 형태만으로는 완전한 구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하단의 모서리가 각을 이루는 경우 등 변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범주에서 상방하방형과 상원하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찰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상원하방을 띠고 있으나 상방하방의 형태도 적지 않다. 고구려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출토 찰갑의 시기가 늦을수록 상방하방형의 소찰로 제작된 경향이 있다(송계현 2005 : 185). 단면 형태는 소찰의 만곡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찰갑은 여러 소찰이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소찰의 대부분은 평찰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평평한 형태이다. 그러나 허리를 감싸는 소찰과 같은 특수 부위에는 만곡의 형태가 다양하

며 크게 ‘S’자형, ‘Ω’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찰갑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형식분류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부위별 존재 여부로 구분한 유형 중 B형은 착장방식에 따른 구분인 양당식(B1)과 동환식(B2)으로 분류된다.

이 중 왜계 찰갑이 확인되는 동환식 찰갑의 선후 관계는 현재 가장 이른 중산리 IB-17호, 임당 G-5호를 보았을 때 ‘S’자형의 요찰을 가진 찰갑이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동환식 찰갑은 요찰과 거찰 단면 형태를 통해 모두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류 : 만곡이 없는 평찰과 ‘S’자형의 요찰을 가진 것

2류 : 만곡이 없는 평찰과 ‘Ω’자형의 요찰, 평찰 형태의 거찰

3류 : 만곡이 없는 평찰과 ‘Ω’자형의 요찰, ‘Ω’자형의 거찰

그런데 이 중 소찰의 투공 배치도 주목되는 요소로 소찰의 상하연결을 위한 투공 형태(위공緘孔)는 1열과 2열로 구분된다. 이것이 주목되는 것은 투공의 배치로 인해 소찰을 연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S’자형 요찰을 가진 동환식 찰갑의 대부분이 1열 배치이며 ‘Ω’자형 요찰을 가진 찰갑은 2열 배치가 많다. 따라서 투공 배치도 시간적인 선후관계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환식 찰갑 중 가장 이른 임당 G-5호, 중산리 IB-17호가 1열 배치이고 이후 옥전 28호에서 2열 배치를 보이며 현재 자료 중 가장 늦은 시기인 송학동 IA-1호와 장목고분에서 2열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투공 배치의 변화는 찰갑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마갑에서도 확인된다<sup>4)</sup>.

이 중 단면 형태가 3류이며 요찰의 투공 배치가 2열에 속하는 동환식 찰갑은

3) 소수이긴 하지만 ‘J’자형의 요찰을 가진 찰갑도 있다.

삼국시대 출토 찰갑을 검토한 국내 연구자 중에는 동환식 찰갑을 요찰의 만곡도에 따라 3유형으로 나누는 보는 견해(禹順姬 2001 : 114)와 유형 내 변화양상으로 보는 견해(장경숙 2007 : 3)가 있다.

4) 최근 마갑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결공(垂結孔)이 중앙 1열 배치에서 중앙 1열과 좌우 2열 혼용배치를 거쳐 좌우 2열 배치로 변화해 간다고 하며 이러한 제작기법은 찰갑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장경숙 2009 : 183).

제작방법과 변화양상을 통해 일본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內山敏行 2008 : 713). 한반도에서 삼국시대에 출토된 찰갑 중 ‘Ω’형 요찰을 가진 것은 모두 10례이며 영남과 호남지방에 분포한다. 그 중 단면 형태가 3류이며 투공 배치가 2열인 것은 장목고분, 송학동 1A-1호, 신덕고분 출토품이 있다. 이 고분들은 갑옷뿐만 아니라 출토 유물과 석실의 구조에서 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河承哲 2006, 洪潛植, 2009).

위의 형식 분류를 참고한 시기별 찰갑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표 7] 시기별 찰갑의 변화

| 시기     | 출토 고분      | 형식     |          |          |    |    |
|--------|------------|--------|----------|----------|----|----|
|        |            | 피갑(A형) | 양당식(B1형) | 동환식(B2형) |    |    |
|        |            |        |          | 1류       | 2류 | 3류 |
| 4세기 전반 | 구어리 1호     | ◎      |          |          |    |    |
|        | 북천동 38호    |        | ◎        |          |    |    |
|        | 임당 1B-60호  |        | ◎        |          |    |    |
|        | 월성로 가-29호  |        | ◎        |          |    |    |
| 4세기 후반 | 대성동 39호    | ◎      |          |          |    |    |
|        | 대성동 57호    | ◎      |          |          |    |    |
|        | 대성동 2호     |        | ◎        |          |    |    |
|        | 임당 G-5호    |        |          | ◎        |    |    |
| 5세기 전반 | 북천동 21·22호 | ◎      |          |          |    |    |
|        | 학소대 1구 2호  |        |          | ◎        |    |    |
|        | 북천동 10·11호 |        |          | ◎        |    |    |
|        | 대성동 1호     |        |          | ◎        |    |    |
| 5세기 후반 | 지산동 32호    |        |          | ◎        |    |    |
|        | 임당 7B호     |        |          |          | ◎  |    |
|        | 교동 3호      |        |          |          | ◎  |    |
|        | 연산동 8호     |        |          |          | ◎  |    |
| 6세기    | 송학동 1A-1호  |        |          |          |    | ◎  |
|        | 장목 고분      |        |          |          |    | ◎  |
|        | 신덕 고분      |        |          |          |    | ◎  |
|        | 쌍암동 고분     |        |          |          |    | ◎  |

4세기의 찰갑은 허리에 만곡이 있는 동환식 찰갑은 거의 출토되지 않고 요찰만 있는 것과 상반신을 보호하면서 요찰이 평찰인 찰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sup>5)</sup>. 전자로는 복천동 21·22호, 구어리 1호, 대성동 39호 등에서 출토된 예가 있고 후자는 임당 IB-60호, 복천동 38호, 월성로 가-29호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경갑과 요찰만이 확인되는 유형은 피갑의 존재로 보는 견해(김영민 2000, 김혁중·김재우 2008)도 있다.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동환식 찰갑이 출토되지만 요찰이 평찰인 것도 계속해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찰갑의 변화를 살펴보면 찰갑 제작은 크게 3기의 흐름이 감지된다. 그 변화의 요소는 동환식 찰갑의 출현과 동환식 찰갑의 요찰 형태 변화 그리고 부속구의 다양화에 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원인은 전술과 기술의 발전 모두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평찰로 제작되던 찰갑이 동환식 찰갑으로 제작되게 된 것은 아마도 신체의 각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찰이 제작되어야 하고 특히 요찰의 경우 허리의 굴곡을 염두해 둔 제작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속구의 다양화는 4세기대에 보이지 않던 비갑, 대퇴갑, 슬갑(膝甲), 경갑(脛甲)이 제작되는 것이다. 이 중 슬갑은 마주와 마갑의 출현과 함께 중장기병 존재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견해(初村武寛 2010 : 7)가 있다. 즉 전술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 (2) 삼국시대 출토 찰갑의 전개양상

삼국시대 찰갑은 그다지 많은 수가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삼국시대에 전쟁으로 각축을 벌이던 각국은 찰갑을 주요 갑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순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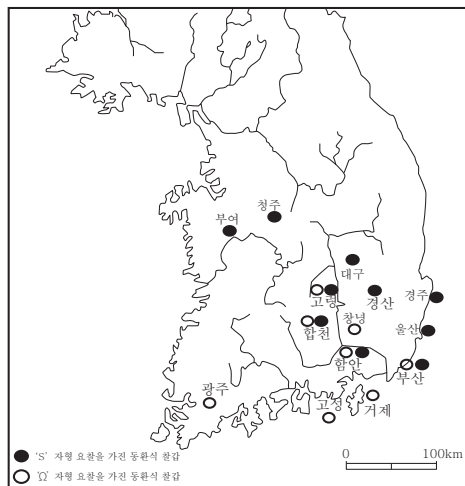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철제 찰갑이 제작되고 이웃 세 나라로 기술이 전파되었다고 보는 곳은 고구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찰갑은 실물자료가 적어 고분에 그려진 벽화의 모습을 보고 많이 언급이 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고구려 고분에 대한 보고서가 간행되고 한강 유역의 보루와 같은 남한지역의 고구려 관련 유적<sup>6)</sup>이 알려지면서 차차 자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5) 임당 G-5호분에서 출토된 찰갑을 4세기 말로 본다면 동환식 찰갑도 4세기에 이미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6) 아차산, 흥런봉과 같은 고구려의 보루에서 찰갑과 관련된 철제 소찰 자료의 출토 사

이며 완전한 구조가 출토된 적이 없지만 벽화와 소찰의 형태를 참고하여 찰갑의 특징이 언급되고 있다.

고구려에서 철제 갑주가 출현한 시기는 集安 山城下 159號墓와 集安 萬寶丁 242-1號墓에서 출토된 소찰로 보아 3세기이나 본격적인 철제 갑주의 도입은 4세기대 중장기병전술 도입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송계현 2005 : 182). 그 중 찰갑은 규격이 다양하나 상원하방형의 상부에 수결공이 중앙에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신라·가야 초기의 동환식 찰갑의 특징과 동일하다. 그러나 5세기 후반대에 상부가 직선적인 상방하방형으로 변화하며 소형 소찰 중 하단부가 삼각형으로 재단되는 변화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찰



[그림 8] 삼국시대 동환식 찰갑 분포도(고구려 지역 제외)

리 분묘 이외에서 출토된 자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른 시기의 찰갑으로 판단되는 몽촌토성 출토품에 대해서는 소찰의 크기와 투공 배치 그리고 공반 유물을 근거로 5세기 이후의 고구려계 문물로 보는 견해(森川祐輔 2008 : 71)가 있다. 여하튼 백제지역의 찰갑도 그 수량은 많지 않지만 평찰을 요찰로 하는 것, 'S'자형과 'Ω'자형을 요찰로 하는 찰갑이 출토되었다. 그 중 'Ω'자형을 요찰로 하는 찰갑은 신덕고분과 광주 쌍암동 고분에서 출토되었는데 두 고

갑은 三燕의 갑주 양상과 동일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찰갑 이외에 마주, 종장판주 등의 제작기술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확인된 동환식 찰갑에서는 'Ω'자형 요철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주목된다.

백제의 갑옷은 출토된 자료가 많지 않으나 소찰이나 찰갑이 보고되어 찰갑이 주요 갑옷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것은 드물며 다른 지역과 달

례가 증가하고 있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2009,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a·2007b·2007c).



분은 어떤 형태로든 당시 일본열도와 관련이 있다.

삼국시대에 무구의 출토량이 가장 많은 곳은 신라와 가야이다. 따라서 이 시기 특징 및 전개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진한과 변한 시기부터 많은 교류가 있어 갑주에서도 제작 기술의 공통성이 엿보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중장판갑이다. 물론 찰갑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분류한 초기 찰갑인 A형 찰갑과 B1형 찰갑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이다.

점차 신라와 가야로 분화되면서 각 국의 독자적인 갑옷 제작 전통이 확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금관가야의 경우 A형 찰갑이 신라와 달리 오랫동안 부장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5세기가 되면 대부분 동환식 찰갑 계통으로 제작된 것을 출토 유물로 알 수 있다. 또한 기승용 마구와 마갑이 공반되기도 하여 중장기병의 등장과 같은 전술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지적된다.

그런데 신라·가야의 동환식 찰갑은 5세기 후반에 이르면 ‘Ω’자형 소찰을 가진 찰갑이 많이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열도에 확인되는 ‘Ω’자형을 가진 동환식 찰갑은 거찰의 형태도 ‘Ω’자형을 이루는 반면에 평찰이 대부분이다. 백제나 영산강 유역은 상대적으로 ‘Ω’자형 요찰과 거찰이 있는 왜계 찰갑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신라·가야 출토 왜계 갑주 중 왜계 찰갑이 적고 대금계 갑주가 많은 점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Ⅳ.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포와 의미

지금까지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 왜계 갑주가 대금계 판갑뿐만 아니라 찰갑까지 다양한 형태로 입수된 것을 확인하고 한반도계 갑주와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왜계 갑주의 출현 배경과 의미를 수용자의 입장 즉 삼국시대 각국이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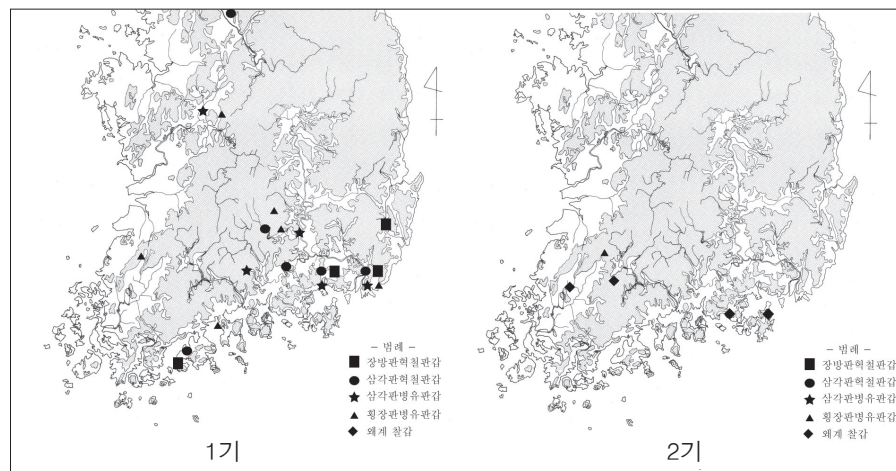
왜계 갑주의 출현에 대해서는 교류에 의한 물품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최근 한국 고고학에서는 대금계 갑주를 일본열도산으로 이해

하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배경이나 목적을 언급한 견해가 많아져 주목된다. 박천수(2007)는 삼국에서 출토된 대금계 갑주를 국가별로 언급하고 출토지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왜와의 교류와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보았다. 또한 이현주(2009)는 대금계 갑주의 수입을 매장의례 과정에서 군사적인 과시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입수한 물품으로 보았다. 두 견해는 대금계 갑주 입수 배경과 목적을 왜측이 아닌 한반도의 수용자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다. 다른 왜계 유물이 그렇듯이 갑주 역시 한일 교섭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대금계 갑주만을 검토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보듯이 왜계 갑주는 찰갑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포함하여 왜계 갑주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왜계 갑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별 분포 양상을 검토하여 그 출현 의미를 살펴보겠다.

## 1. 분포 양상

한반도의 삼국시대에는 왜계 문화 요소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왜계 유물은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기능과 수용 배경 및 목적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주거지나 분



[그림 9]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 분포 양상

묘에서 확인되는 왜계 토기는 생활용기로써 당시 왜인이 한반도에 정주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크고 왜경이나 패제 국자 등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고 수장층 등의 한정된 계층의 분묘에만 확인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시 교섭이나 위세품 등의 수입 배경과 역할이 언급되었다. 갑주도 방형 판갑이라는 유물을 왜계 유물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일찍부터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계 갑주의 분포는 시기별로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1기와 2기의 큰 구분은 갑주의 종류 차이로 먼저 1기에는 판갑만 확인되고 이후 2기가 되면 찰갑이 출현하였다. 이를 판갑과 찰갑뿐만 아니라 투구와 부속구의 변화 등을 통해 일본에서는 중기형 갑주와 후기형 갑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1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전방후원분의 축조가 2기에 확인되므로 큰 획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두 시기로 구분하여 분포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1기

왜계 갑주는 백제 · 신라 · 가야 모두에서 확인되며 영남지방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가야에 제일 많은 분포가 확인되고 왜와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 · 가야뿐 아니라 신라에서도 왜계 갑주가 출토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이 주목된다.

백제는 최근에 가장 이른 형식인 장방판혁철판갑이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확인되었다.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왜계 갑주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당시의 백제와 왜의 교류는 일본열도에서는 확인되는 백제토기 등 고고자료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적극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물론 고분의 피장자 성격에 대해서는 재지세력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백제의 위세품인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 부장되어 있어 백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이 일찍이 백제계 위세품과 왜계 갑주를 입수한 것은 백제와 왜의 교류가 해로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매개하는 역할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5세기 후반에는 신봉동에서 삼각판병유판갑이 확인되는데 스에키 등의 공반유물 등으로 보아 피장자를 왜인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왜계 갑주를 포함한 왜계 유물이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신라는 가야·백제와 달리 5세기 전반에는 확인되지 않고 5세기 후반에 울산, 부산, 창녕에서 확인된다. 또한 분포는 신라의 중심지보다는 지방에서 확인되며 남쪽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당시 신라는 영토 확장을 위해 동해안 방면으로 북진 정책(450년)을 추진하고 고구려의 남진정책(455년)에 대항하여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은 상태였다. 따라서 왜와 이전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백제를 통한 교류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북진정책에 따른 남쪽에 대한 방어 전략과 가야에 대한 서진을 위한 대책으로 왜와 군사적 외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례로 울산 하삼정, 부산 복천동·연산동 고분 출토 대금계 갑주를 들 수 있겠다.

가야의 고지인 부산, 김해, 함안, 옥전에서 왜계 갑주가 출토되었는데 대금계 갑주만이 확인된다. 그런데 가야에서는 4세기대부터 일본열도와 관련된 갑주가 확인된다. 그 대상은 방형관갑과 종장관갑이다. 방형관갑의 원류 등은 아직 검토가 필요하나 일찍부터 왜와 관련된 갑옷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또한 종장관갑은 4세기대 영남지방에서만 확인되는 특유의 갑주로 일본의 수신관혁철관갑과 기술적 관련성이 지적된다. 가야에서 출토된 왜계 갑주는 5세기 전반과 후반 사이에서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5세기 전반은 시기차가 조금은 존재하나 이른 형식이 김해, 함안, 합천 옥전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그 형식을 살펴보면 장방관혁철관갑은 김해, 함안, 합천 옥전에서 삼각관혁철관갑은 김해에서 확인되었다. 이후 5세기 후반에는 전반과 달리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 그리고 호남 동부까지 분포가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소가야이다. 여수 죽림리와 김해 죽곡에서 출토된 대금계 갑주에는 소가야 양식의 토기가 공반되어 그 배경이 흥미롭다.

## 2) 2기

6세기는 왜계 갑주 중 대금계 갑주보다 찰갑의 부장이 많이 확인되며 1기에 비해 분포도 넓지 않다. 이 시기 제작된 한반도산 갑주도 찰갑만이 확인되

는데 이미 5세기 후반에 이르면 한반도 고유의 판갑인 종장판갑은 보이지 않으므로 삼국과 왜는 찰갑을 주요 무구로 제작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백제는 영산강 유역에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초까지 전방후원분이 축조되는데 왜계 갑주도 이곳에 집중해서 확인된다.

신라는 6세기 이후 왜계 갑주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6세기대 신라와 왜의 교류 관계는 일본열도에서 확인되는 금공품과 금동안장과 같은 마장 문화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왜와 적대적인 관계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신라권의 여타 고분에서 갑주 자체를 거의 부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왜계 갑주의 부장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가야는 남해안에 왜계 석실이 조영되며 송학동 고분과 장목 고분에서 왜계 찰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삼국의 왜계 갑주 분포 양상에서 주목할 점은 왜계 고분을 제외하고는 왜계 갑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각국이 갑주를 부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한반도에 정주한 왜인 말고는 더 이상 왜계 갑주를 입수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 2. 왜계 갑주의 소유 배경 검토

왜와 관련된 무덤으로는 영산강 수계에 분포하는 전방후원분과 경남지역에 분포하는 왜계 석실이 있다. 이러한 석실의 피장자 성격은 고대 한일 관계사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고분들에서는 왜계 유물과 더불어 한반도산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거기서는 왜계 갑주 역시 확인되고 있는데 왜계 갑주는 왜계 고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통적인 묘제에서도 출토되어 피장자의 성격 검토는 왜계 갑주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우선 왜계 고분은 전방후원분과 매장주체부가 왜계 석실인 경우로 나뉜다. 전방후원분의 경우 영산강 수계에 집중하고 있는데 피장자 출신은 왜인과 재지수장설로 구분된다. 또한 왜인은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 왜인독자설과 왜계

백제 관료설로 나뉘며 재지수장설은 백제에 복속된 지방 수장이라는 견해와 영산강 유역 독자 정치체의 수장이라는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왜계 석실의 경우는 대부분이 피장자의 출신이 왜인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지수장설에서는 당시 교류의 영향으로 보는 듯하다. 왜계 석실에서 확인되는 왜계 갑주는 모두 찰갑이다. 왜계 찰갑은 많은 수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장목 고분을 제외하고는 전방후원분에서 확인된다.

왜계 고분이 아닌 한반도 전통의 묘제에 부장된 경우는 거의 대금계 갑주로 대형분과 중·소형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계 묘제에 출토된 경우, 갑주 이외에 왜계 유물은 그다지 확인되지 않는다.

[표 8] 왜계 갑주 부장 양상

| 분류     | 묘제         |          |                                                                                     |                  |              |
|--------|------------|----------|-------------------------------------------------------------------------------------|------------------|--------------|
|        | 한반도계 묘제    |          |                                                                                     | 왜계 묘제            |              |
|        | 대형분        |          | 중·소형분                                                                               |                  |              |
|        | 출토 고분      | 한반도산 갑주  |                                                                                     | 유구명              | 왜계 유물        |
| 대금계 갑주 | 지산동 32호    | 종장판주, 찰갑 | 북천동(4호, 112호),<br>도항리 13호, 옥전<br>68호, 울산 하삼정<br>26호, 김해 죽곡<br>94호, 여수 죽림<br>2지구 10호 | 외도<br>상식석관묘상식석관묘 |              |
|        | 옥전 28호     | 종장판주, 찰갑 |                                                                                     | 거제 장목 고분         |              |
|        | 연산동 8호     | 종장판주, 찰갑 |                                                                                     |                  |              |
|        | 교동 3호      | 종장판주, 찰갑 |                                                                                     | 장성 만무리 고분        | 삼환령          |
|        | 고흥 안동 고분   | ?        |                                                                                     |                  |              |
|        | 신봉동 90B-1호 | 종장판주     |                                                                                     |                  |              |
| 왜계 찰갑  |            |          |                                                                                     | 함평 신덕 1호분        | 스에키,<br>장식대도 |
|        |            |          |                                                                                     | 고성 송학동 1A-1호     |              |
|        |            |          |                                                                                     | 광주 쌍암동 고분        |              |
|        |            |          |                                                                                     | 거제 장목 고분         |              |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왜계 갑주의 유무만을 확인하였는데 갑주 이외의 왜계 유물의 성격은 청동기물의 경우 위세품으로, 토기의 경우는 교역이나 왜인에 의해 남겨진 유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축조의 비연속성, 묘제의 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왜계 고분의 피장자를 왜인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계 고분에 왜계 갑주가 부장됨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왜계 고분이 아닌 고분에 부장된 경우는 피장자가 어떤 이유로 입수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계 묘제의 피장자가 왜계 갑주를 소유한 배경으로 단순 물품의 수입, 위세품의 용도, 왜와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단순 물품의 수입은 갑주라는 특성상 제작의 제한이나 용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 다음으로 위세품의 용도가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것이 위세품으로 일종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중앙과 지방에서의 일정한 위계적 분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환두대도와 같이 분여와 사여의 행위가 일정하게 있어야 해당 정치체에서 위세품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성주 2002). 그러나 왜계 갑주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한 한반도계 묘제에서 대형분의 경우 한반도산 갑주와 같이 공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계적 분포를 이룰 정도의 정황이나 출토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왜와의 정치적 관계에 따른 입수이다. 이 부분은 대외 군사 외교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갑주의 용도나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보건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3.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포 의미

지금까지 왜계 갑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형성이 확인된다.

- ① 한반도에서 출토된 왜계 갑주가 소량이기기는 하지만 출현과 소멸 등의 전체적인 형식변화도 일본열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 ② 출토 양상을 보면 왜계 갑주는 왜계 묘제와 한반도계 묘제 모두에서 확인되며 한반도계 묘제의 경우 대형분에서는 거의 한반도산 갑주와 공반되나 왜계 갑주 이외의 왜계 유물이 거의 공반되지 않는다.
- ③ 고구려를 제외한 삼국 각국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고구려를 제외한 삼국은 왜계 갑주의 유입이 오랜 기간 있었으나 대형분의 출토 사례를 볼 때 왜계 갑주가 한반도산 갑주를 대체할 무구는 아니었으며 왜계 갑주를 당시 왜정권이 정치적 위계질서 속에서 분배한 현상과 동일하게 이해 할 수 없다. 따라서 삼국은 각국의 의도에 따라 왜계



갑주를 수용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야는 앞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일찍이 왜계 갑주가 확인되었고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왜계 갑주의 분포도 다르다. 우선 이른 시기는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에 분포하고 이후 대가야와 소가야에 왜계 갑주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분포 변화는 당시 가야와 왜의 교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5세기 전반에 확인되는 김해와 함안은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중심지이며 금관가야의 경우 4세기부터 철소재 교역을 위해 왜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대성동 고분군 출토 왜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5세기 전반에 고구려 남정에 의해 그 세력이 와해된다는 견해가 많은데 이전에 거의 확인되지 않던 왜계 갑주가 김해 두곡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은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는 철소재 수입과 관련된 교섭이 중단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므로 왜의 군사적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5세기 후반은 지산동과 옥진, 김해와 호남 동부지역인 여수에서 왜계 갑주가 확인된다. 이것은 대가야와 소가야 권역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고구려 남정 이후 변화된 한반도 내 왜와 가야의 교섭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왜계 갑주의 출현 의미에 대해서는 위세품으로서의 역할이 언급된다. 그러나 4세기대 가야에서 출토된 왜계 유물 중 파형동기, 석제품 등과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세기대 왜계 유물은 대성동 고분과 같은 중심 고분에서만 출토되는 점과 달리 5세기대 왜계 갑주는 김해 두곡이나 죽곡과 같은 중·소형분에 확인된다. 또한 이 시기 왜계 유물은 이전에 완제품이 수입되던 것과 달리 이모가이 조개, 비취 등의 원료 수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갑주는 아니지만 왜에서 동일한 권력 상징물이었던 왜경이 한반도의 분묘에 부장된 의미가 위세품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성주 2002, 이유진 2010)은 왜계 갑주 출현 의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제는 일찍이 왜와 교류가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왜계 갑주의 분포는 5세기대 가야와 비교하여 매우 적다. 따라서 5세기대 왜계 갑주의 수용 배경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전방후원분이 축조된 시기에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된 왜계 갑주를 통해 그 입수나 수용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방후원분 피장자의 성격은 왜계 백제관료, 백제와 대가야가 파견한 전문 전사집단, 선진기술 및 문물을 입수하기 위한 정주집단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중 왜계 백제관료와 전문 전사집단은 일단 백제나 한반도 내 정치체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고 문물 입수를 위한 정주집단은 때로는 왜 정권이나 집단 자신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그 차이가 있다.

그런데 후자인 문물 입수를 집단으로 비정하는 이유는 삼국의 유물을 입수하기 좋은 교통조건에다가 왜계 묘제에 부장된 백제·신라·가야의 유물과 재지 묘보다 거대한 분구 축조를 하기 위해서는 재지 세력의 협조가 선행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이다(홍보식 2006).

하지만 고성 송학동 고분을 제외한 전방후원분 부장품에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요소가 있는지 문제가 되며 고성 송학동 고분의 경우 소가야의 중심 고분으로 왜와 백제, 신라의 교섭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백제의 전방후원분은 단순히 선진 문물을 입수하기 위한 교섭 주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가야의 왜계 고분처럼 삼국의 문화요소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편재성, 산재성, 비연속성이 확인되는 분포양상(山尾幸久 2001)과 석실 유형 등으로 확인되는 일본열도 속의 다양한 출자 등에서 재지수장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백제에 의해 파견된 왜계 백제 관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확인된 고흥 안동고분 축조 배경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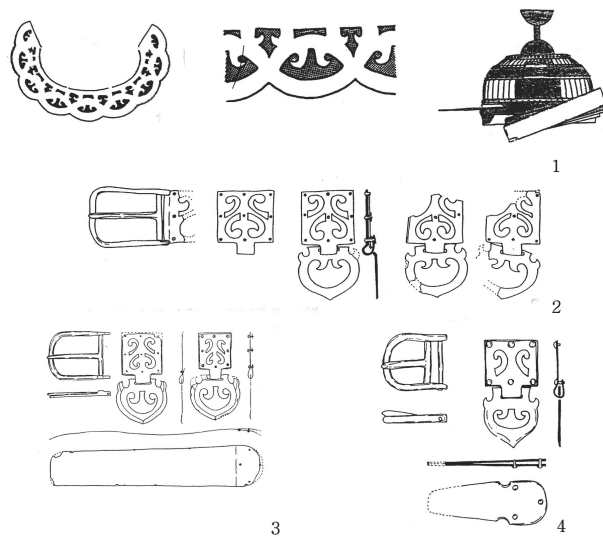
신라는 일찍부터 왜와 적대적인 관계가 지적되어 왔지만 왜계 유물뿐만 아니라 왜계 갑주도 확인된다. 이러한 신라권 출토 대금계 갑주를 두고 출토 지역을 신라권역이라 볼 수 없다는 견해(東潮 2006)가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지금까지 대금계 갑주는 가야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온 측면(鈴木一有 1996 : 송계현 2004)이 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이 시기에 신라권에 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라권역에 많지는 않으나 대금계 갑주가 출토되고 있으므로 당시 일본열도와 신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라가 대금계 갑주를 입수한 배경은 가야와 같이 교섭권의 변화로 이해하기 어렵다. 즉 신라는 가야와 같이 여러 국이 연합된 연맹으로 볼 수 없기 때

문이다.

필자는 우선 신라가 갑주 제작에 있어 일본열도와 관련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금동 갑주를 검토하고자 한다. 금동 갑주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모두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다음의 두 연구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먼저 橋本達也(1994)는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금공품을 분석하고 이 제작집단과 갑주 제작집단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또 二本松山고분 등에서 출토된 금동관이 금동 갑주에 표현된 형태와 유사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금동관이 지산동 32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것을 근거로 한반도에서 온 도래 공인의 제작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박천수(2010)는 최근 譽田御廟山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안장을 신라산으로 보면서 신라의 고총에서 출토되는 금관과 대장식구에서 확인되는 경옥제 곡옥을 일본열도산으로 이해하여 두 정치체간의 교섭을 상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금동 갑주의 제작이 신라 공인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들을 보면 금공품 제작 공인이 갑주 제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와 일본열도의 금공품 중 가장 관련이 큰 유물은 대장식구라고 할 수 있다. 橋本達也(1994)은 금동 갑주 제작에 금공



1: 大阪・西小山古墳 2: 櫛山古墳 3: 井上collection 소장품 4: 宮山古墳

[그림 10] 일본열도 출토 금동 갑주 관련

품 공인과 관련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차양주의 문양과 대장식구의 문양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대장식구는 高田貫太(2005)에 의하면 초엽문 대장식구로 신라와 관련이 큰 한반도계 유물이다. 또한 신라가 가야에 비해 일찍이 갑주 부장을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금동 갑주를 부장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 신라와 일본열도 사이에 갑주 제작과 관련하여 상당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신라가 대금계 갑주를 입수한 배경을 연산동 고분 출토 갑주의 성격을 일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신라의 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분석한 의미있는 검토가 시도되었다(우병철 2009). 대상지역은 동해안으로 한정되었지만 신라의 대외 진출과 방어 전략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는 통시적으로 신라의 무기체계를 검토하고 동해안의 주요 지역에 위치한 지역 집단의 무기체계 분석을 통해 신라의 영역 확대 동향을 추정하려고 하였다. 동해안에 위치한 고분 축조 집단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지역과 바다에 근접하며 고구려와 왜에 대한 방어 및 연락망의 요충지역, 둘째, 신라 중앙의 인근에 있으며 신라가 고대 국가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신라 중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 셋째, 경주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나 신라가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외 진출 혹은 대외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나누었다.

이 중 세 번째 지역이 대구, 창녕, 양산과 같은 고층 축조 지역으로 부산의 연산동 고분군도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연산동 고분군 축조 집단은 군사집단의 성격 검토에서 살펴 볼 동해안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그것은 바로 대금계 갑주가 부장된다는 점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대금계 갑주의 입수 배경에 군사적 동맹 관계를 지적한 견해가 있었다. 이를 신라 내 지역 집단의 독자적인 동맹 관계로 이해한다면 수용하기 힘든 견해이나 신라가 대외방어나 대외진출을 위해 왜와 군사적 동맹을 맺었고 이러한 결과가 거점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신라의 낙동강 서안 진출에 대해서는 김해 예안리 유적의 성격을 통해 검토된 바 있다(이희준 1998). 신라 토기의 지속적인 부장이 그 근거가 되었는데 연산동 고분 역시 현재까지의 발굴성과(부산박물관 2010, 우리문화

재연구원 2009)를 보면 대개 신라 토기 일색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산동 고분 축조 집단의 성격에 대해 부산지역의 신라화 이전에 대외적으로 일본 열도와 교섭을 상정한 견해가 있다(高田貫太 2005). 그러나 연산동 고분은 출토 토기 등을 보았을 때 이미 신라화된 지역으로 이 견해처럼 금관가야가 낙동강 하구 사용권을 가지면서 일본열도와 교역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연산동 8호분에서 출토된 대금계 갑주와 같은 일본열도산 문물은 신라와 일본열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배경은 신라의 대외진출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신라 권역에서 출토된 교동 3호, 복천동 112호, 울산 하삼정 115호에서 출토된 대금계 갑주의 성격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 V. 맺음말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많은 왜계 문화요소가 확인된다. 그 중 왜계 갑주는 당시 왜정권의 상징적인 유물로 한반도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異見이 있었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대금계 갑주의 제작지 문제였으나 그동안의 증가하는 자료와 구조에 대한 여러 치밀한 분석을 통해 왜계 갑주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왜냐하면 왜계 갑주가 어떠한 배경과 목적으로 한반도에 입수되었는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 볼 목적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왜계 갑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를 제외한 삼국이 모두 왜계 갑주를 수용하였으나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수용배경과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기왕의 연구는 이러한 왜계 갑주가 가야에 집중되고 있어 왜와 가야의 관계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왜와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에 왜계 갑주가 존재하고 있어 그 의미가 주목되며 이는 당시 신라의 영토 확장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 역시 일찍부터 왜계 갑주가 확인되며 영산강 유역에 확인되는 전방후원분 출토 왜계 갑주는 위세품이라기보다 백제의 남방을 감시하는 왜계 백제관료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이 본고에서의 한계이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왜계 갑주가 출토된 한반도 내 고분의 입장을 조금 살펴보았으나 왜가 어떠한 목적으로 왜계 갑주를 공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기왕의 연구에서 왜의 철소재 입수와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왜의 군사적 진출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단일한 양상으로 왜측의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여타의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왜계문화 요소는 왜정권뿐만 아니라 지방정권의 물품까지 섞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왜계 갑주 역시 제작상의 지역적 특징이 확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당시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1.2.28 | 심사완료일 2011.3.18 | 게재확정일 2011.3.19

## 참고문헌

- 國文 -

- 김두철, 2005, 「4세기 후반~5세기 초 고구려·가야·왜의 무기·무장체계 비교」, 『광개토대와비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
- 김영민, 2000, 「영남지방 관갑에 대한 재고」, 『蔚山 史學』 第9輯.
- 김재우, 2010, 「금관가야의 갑주」, 『대성동고분군과 동아세아』, 제16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 김혁중·김재우, 2008, 「김해 대성동 57호 출토 갑옷」, 『嶺南考古學』 第46號.
- 김혁중, 2009, 「연산동 8호분 출토 찰갑의 구조와 특징」, 『한국의 고대갑주』, 북천박물관.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 교섭사』, 사회평론.
- 박천수, 2010, 『고대 왕권과 한일관계』, 「4~6세기 왜 고분의 변천과 왕권」.
- 북천박물관, 2001, 「甲冑出土遺構—覽表」, 『고대의 전쟁과 무기』, 제5회 부산북천박물관학술포럼대회.
- 宋桂鉉, 1988,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研究」,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宋桂鉉, 1997, 「釜山 伍倫臺 採集 甲冑類」, 『博物館研究論集』 6.
- 송계현, 2001, 「4~5세기 동아시아의 갑주」,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 第2回 加耶史 國際學術大會.
- 宋桂鉉, 2004, 「加耶古墳의 甲冑變化와 韓日關係」,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10集.
- 송계현, 2005, 「북방사논총」, 『桓仁和 集安의 고구려 갑주』, 고구려연구재단.
- 송정식, 2009, 「삼국시대 관갑(板甲)의 특징과 성격」, 『학예지』 제16집.
- 申敬澈, 「釜山 蓮山洞 8號墳 發掘調査概報」, 『釜山直轄市 博物館年報』 第10輯
- 연민수 외, 2010, 『집중 해부 - 한국의 전방후원분』.
- 우병철, 2008, 「철촉과 철모로 본 신라, 가야 그리고 왜」, 『영남고고학』 47호.
- 우병철, 2009, 「신라 철제무기로 본 동해안 고분 축조 집단의 군사적 성격」,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 禹順姬, 2001, 「3. 甲冑자료에 대한 檢討」, 『東萊 福泉洞 鶴巢臺古墳』, p. 114.
- 禹順姬, 2006, 「古墳出土 臂甲 檢討」, 『石軒 정정원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 이성주, 2002,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왜계유물」, 『고대 동아시아와 삼한·삼국의 교섭』, 북천박물관 국제학술회의.
- 이유진, 2010, 「5~6세기 한반도 출토 왜경(倭鏡)의 성격」, 『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북천박물관.
- 이현주, 2009, 「한국고대갑주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고대갑주』, 북천박물관.
- 李賢珠, 2008, 「三國時代의 甲冑」, 『日韓의 武具』 西都原考古博物館.
- 이희준, 1998, 「김해 예안리 유적과 신라의 낙동강 서안 진출」, 『한국고고학보』 제39집.
- 장경숙, 2006a, 3, 「비늘갑옷 연구 시론(Ⅰ)」, 『고분연구회』 제4회.
- 장경숙, 2006b, 7, 「비늘갑옷 연구 시론(Ⅱ)」, 『고분연구회』 제6회.
- 장경숙, 2007, 「외래계 갑옷과 투구(外來系 甲冑)」, 『4~6세기 가야·신라 고분 출토의 외래계 문물』, 第6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 장경숙, 2009a, 「고대 방어무장(甲冑) 용어 정리」, 『古墳研究』14, 제14회 학술발표자료집.
- 장경숙, 2009b, 「말갑옷(馬甲) 연구시론」, 『學藝誌』第16輯, 육군박물관.
- 田中晋作, 2010, 「고분시대 무기조성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대성동고분군과 동아시아』, 제16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 河承哲, 2006, 「Ⅳ. 考察 - 巨濟 長木古墳에 대한 一考察」, 『巨濟 長木 古墳』.
- 洪潜植, 2009, 「韓半島南部地域の九州系横穴式石室」, 『九州系横穴式石室の伝播と擴散』.
- 홍보식, 2006,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 - 기원후 3~6세기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4.
- 井上主税, 2006, 『嶺南地方 出土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高田貫太, 2005, 『일본열도 5,6세기 한반도계 유물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 橋本達也, 2006, 「갑주편년연구의 한일비교-대금식갑주를 중심으로-」, 『한일고분시대의 연대관』 역박국제연구집회, 국립역사민속박물관·부산대학교박물관.
- 鈴木一有, 2007, 「鐵鍬과甲冑에서본韓日古墳並行關係」, 『한일삼국·고분시대의연대관(Ⅱ)』, 韓國·國立釜山大學校博物館·日本國·國立歷史民俗博物館.

- 日文 -

- 森川祐輔, 2008, 「東北アジアにおける小札甲の様相」, 『朝鮮古代研究』, 第9号.
- 初村武寛, 2010, 「日本出土重裝騎兵裝備と人用甲冑」, 『重裝騎兵研究會』第2回.
- 清水和明, 1996, 「東アジアの小札甲の展開」, 『古代文化』第48卷.
- 内山敏行, 2000, 「保渡田八幡塚古墳」, 『保渡田八幡塚古墳の小札甲』.
- 内山敏行, 2008, 「小札甲の變遷と交流」, 『王權と武器と信仰』.
- 山尾辛久, 2001, 「5,6世紀の日朝關係-韓國 前方後圓墳の一解釋-」, 『朝鮮學報』179, 朝鮮學會.
- 穴沢咏光・馬目順一, 1975, 「南部朝鮮出土の鐵製鋌留甲冑」, 『朝鮮學報』第76輯.
- 白井克也, 2003, 「馬具と短甲による日韓交差編年」, 『土曜考古』第27号.
- 鈴木一有, 1996, 「三角板系短甲について」, 『浜松市博物館館報』Ⅷ.
- 鈴木一有, 2005, 「第4章 考察, 中八幡古墳出土短甲をめぐる問題」, 『中八幡古墳』.
- 鈴木一有, 2008, 「古墳時代の甲冑にみる傳統の認識」, 『王權と武器と信仰』.
- 阪口英毅, 1998, 「長方板革綴短甲と三角板革綴短甲-變遷とその特質-」, 『史林』第81卷, 第5號, 史學研究會.
- 阪口英毅, 2000, 「古墳時代中期における甲冑副葬の意義-「表象」をキーワードとして-」, 『表象としての鐵器副葬』, 第7回 鐵器文化研究集会.
- 阪口英毅, 2005, 「紫金山古墳出土武具の再検討」, 『紫金山古墳の研究』京都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 橋本達也, 1994, 「古墳時代中期における金工技術の變革とその意義」, 『考古學雜誌』80-4.
- 橋本達也, 1999, 「(2)野毛大塚古墳出土甲冑の意義」, 『野毛大塚古墳』世田谷區教育委員會.
- 橋本達也, 1998, 「豎矧板・方形板革綴短甲の技術と系譜」, 『靑丘學術論集』第12集 (財)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橋本達也, 2005, 「古墳時代甲冑系譜論-日韓の帶金式甲冑の問題」, 『マロ塚古墳出土品を中心にした古墳時代中期武器・武具研究』, 國立歷史民俗博物館共同研究.

滝沢 誠, 1991, 「鋳留短甲の編年」, 『考古學雜誌』第76卷 第3号.

福尾正彦, 2003, 「日本と朝鮮半島の鐵製甲冑」, 『東アジアとの日本 考古學Ⅲ』.

田中晋作, 「副葬品の種類と變遷, 2 武具」, 『古墳時代の研究』8.

高橋 工, 1991, 「甲冑製作技術に 關する 若干の 新視點」, 『盾塚 鞍塚 珠金塚 古墳』.

勝田和尊, 2006, 『古墳時代の王權と軍事』, 學生社.

古谷 毅, 2006, 「方形坂革綴短甲の基礎的研究(1)」, 『東京國立博物館紀要』第23号.

東潮, 2006, 『倭と加耶の國際環境』, 吉川弘文館.

- 보고서 및 지도위원회 자료집 -

부산박물관, 2010, 『연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3) - 정비복원 및 연제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 지도위원회 자료집 제8집』.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a, 『아차산제3堡壘 유적』.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b, 『홍련봉1堡壘』.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c, 『홍련봉2堡壘 1차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아차산 제4보루-발굴종합보고서』.

서울大學校博物館, 2009, 『龍馬山 第2堡壘』.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예정부지내 유적』.

#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Japanese Style Armors from the Korean Peninsular

Kim, hyuk -joong(BUSAN MUSEUM)

A lot of iron armors in various shape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have been excavated, and it is quite noticeable that same types of armors are found both in Korea and Japan. Japan related cultural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from the remain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se armors are believed to be one of them regarding to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r circumstances.

Since Japanese style armors are viewed as the symbolic remains of Japanese authority at that time,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One of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issues is about the manufacturing site of Daegeum type armors, which is most likely to be considered Japanese style armors through increasing data and rigorous analysis on the structure. However, it becomes more complicated when clarifying the reason and purpose of Japanese style armors being introduced to Korea.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ites of Japanese style armors found in Korea, and lacked detailed reviews on the background and meanings of those armors. In addition, studies on the armors excavated in Baekje and Shilla area are not sufficient compare to those from Yongnam province, the old Gayaarea. This study was to provide comprehensive data about Japanese style armors found across the country, and to examine the meaning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burial aspects and distribution.

The result is that Japanese style armors were identified every area except

Corea, and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meanings are different depending on each kingdom's circumstance. Previous studies tended to explain the reason of distribution of Japanese style armors in the Korean peninsular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aya and Japan; Japan wanted to acquire iron ores from Gaya, and Japan wanted to establish their outpost on Gaya to acquire iron ores. However, it is highly possible that each of three kingdoms adopted Japanese style armors for their own interest. Although it is considered that Shilla was hostile toward Japan, it is also highly possible for Shilla to trade military products with Japan. Furthermore, Japanese style armors were found out over the Baekje area, and Japanese style armors that were found out from the keyhole-shaped tomb of the Youngsan River area are not Wishinjae, but relics which show characteristics of Baekje's officials who protected the southern Baekje.

**Key words :** Japanese Style Amors, Distribution Pattern, Korea Peninsular, Japan

